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구성한 체육교과 건강영역*

Physical Education Lesson Planning Based on a Christian Worldview

박영진 (Young Jin Par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of whole person education failure in physical education and to suggest a Christian perspective as an alternative.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body view of the current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redefined the meaning of the whole person in physical education based on a Christian worldview, and then reinterpreted the physical activity knowledge taught in a physical education class. In addition, a hiking activity lesson under the health unit from a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was reconstructed. The hiking lesson was designed to learn and practice loving oneself, others, and God's creation, which is in line with the whole person education that aims to nurture healthy members of societ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e author suggests that the purpose of physical education for the whole person can be achieved by designing physical activities to love oneself, others, and God's creation.

Key Words: Christian worldview,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reconstruction, physical activity knowledge, health area, love

* 2023년 2월 13일 접수, 3월 5일 최종수정, 3월 10일 게재확정

** 장대현중고등학교(Jangdaehyun Middle & High School) 교사,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4로 76번길 71, loy2ka725@gmail.com

I. 서론

2023년 1월 한국야구대표팀은 WBC(World Baseball Classic) 대회를 준비하며 대표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어느 유명 선수의 인터뷰가 논란이 되었었다. 메이저리그를 오랫동안 경험한 그 선수는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소재 한인 라디오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고교시절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대표팀 선발에서 영구 제명된 후배 선수를 안타까워하며 용서가 쉽지 않은 한국사회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 발언으로 인해 팬들과 여론의 못매를 맞았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학교폭력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소위 국민 정서법이라고 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날로 악화져가는 학교폭력에 대한 마땅한 예방책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가해자의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피해자의 아물지 않은 상처를 덧나게 하는 행위들이 국민을 분노케 하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학생들에게 체육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우리 사회에 만연한 폭력 문제를 대할 때 ‘신체활동을 통해 지식을 가르치는 체육교과가 인간의 폭력성을 자극하지는 않았을까?’라는 두려움과 죄책감이 밀려온다. 매년 반복되는 스포츠계와 우리 사회의 폭력 문제를 바라보며 과연 ‘학교체육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왔는가?’ 그리고 체육교과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라는 물음이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학교현장에서 체육교과 수업은 오랫동안 운동기능 중심으로 운영되어왔으나 교육과정 개정을 거치며 학교폭력 예방과 정서순화 등 각종 교육상황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완화할 수 있는 인성교육의 핵심교과로써 그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이정택, 2015). 이는 우리 사회와 교육계가 신체활동이 폭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반영한 현상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최의창(2010)은 스포츠가 보편화 됨에 따라 “스포츠는 인성을 길러준다(Sports build character)”라는 상투적인 표현과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오락의 목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하기 때문에 체육교과를 통해 기를 수 있는 인성과 관련된 여러 자질들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학교체육현장에서의 ‘기능적 수업’, ‘아나공 수업’ 등의 체육수업 방식이 학생들에게 체육교과를 통한 다양한 자질 획득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교사들의 경우 체육을 중요하지 않은 교과로 분류하고, 아동들에게 할 일을 주고 ‘내버려 두는 시간’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류태호, 2001 ; 최의창, 2004).

이러한 학교체육의 현실을 극복하고자 체육교과는 신체활동으로 학습되는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의 고른 발달을 통한 전인교과으로써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 운동을 잘하는 것 뿐만 아니라 팀워크, 페어플레이 정신 등 활동적인 삶을 계획하고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 신체활동 가치를 도입하여 체육교과의 목적인 신체활동을 통해

신체활동 지식(개념적 지식, 수행 지식, 관계 지식)을 획득한 전인 양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유정애, 2009: 13; 최의창, 2007). 또한 최의창(2020b)은 인문적 체육을 통해 체육활동에서 운동을 하는 것, 아는 것, 느끼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운동을 향유하는 것이며 “스포츠 교육(체육)은 학생들이 운동소양을 길러서 운동 향유력을 최대로 구사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주장은 전인 양성을 위한 체육교과의 지향점이 인간을 신체와 정신이 분리된 이분법적 존재로 보고 신체의 양성만을 강조한 것이 아닌 신체활동과 정신을 함께 가르치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하지만 정응근(1987)은 체육교과가 전인을 양성하는 교과가 되기 위해서는 이원론적 사고에 의해 정체성을 상실한 체육학의 학문성과 신체관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체를 바라보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Hoekema(2012)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이분설과 삼분설을 배격해야 하며 성경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손수 만드신 사람을 신체와 영, 혼으로 분리된 존재로 보지 않고, 통일체, 전인격적 존재로 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Hoekema, 2012: 281 ; 김옥태, 2012). 그리고 강용원(2015)은 사람을 전인격적 존재로 규정한 기독교 교육에서의 인성교육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와같이 인간을 전인격적 존재로 바라보는 기독교적 관점은 인간을 신체와 정신으로 분리된 이분법적 존재로 보며 전인 양성을 추구하는 체육교과의 관점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 세계관적 인간 이해를 바탕으로 체육교과에서 가르치는 신체활동 지식을 재해석하여, 이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체육교과 건강영역 단위 재구성을 통해 체육교과의 목적인 전인 양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시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체육과 교육과정은 무엇인가?

둘째,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체육교과 건강영역 단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본 연구는 기독교 세계관을 기초로 재해석한 체육교과의 신체활동 지식을 국가수준의 체육과 교육과정에 접목하여 학교체육현장에 적용함으로써 기독교 교육의 실천을 도모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국가수준의 체육과 교육과정 이해

(1) 체육교과의 신체활동 지식

체육교과의 신체활동 지식은 “신체활동이라는 대리자를 통해 구현되는 지식으로 개념적 지식, 수행 지식, 관계 지식의 3가지 구조로 되어있으며, 개념적 지식은 명제적 지식, 수행 지식은 방법적 지식, 관계 지식은 신체활동을 바람직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기 자신 및 타인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그것에 기초하여 행동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에 관한 지식을 의미한다(유정애, 2009: 15-16).” 유정애(2009)가 분류한 체육교과의 개념적 지식과 수행 지식은 길버트 라일(G. Ryle)의 분류를 통해 더 구체화할 수 있다. Ryle은 지식을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으로 구분하였는데 “명제적 지식”은 ‘무엇 무엇임을 아는 것’ 또는 명제로 진술되는 사실이나 정보를 아는 것이며, ‘방법적 지식’은 ‘무엇 무엇을 할 줄 아는 것’ 말 그대로 방법을 아는 지식”으로 설명하였다(나현규, 2020).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한 체육교과 신체활동 지식의 구조는 Figure 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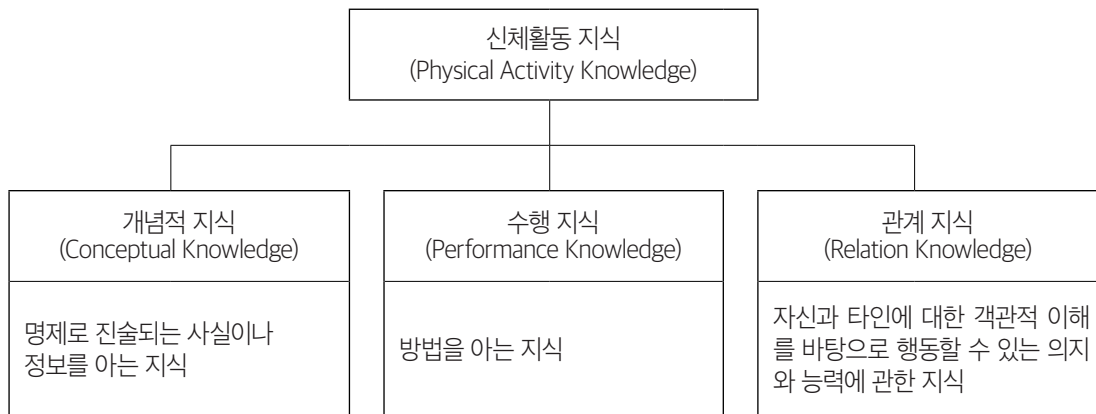


Figure 1. The Structure of Knowledge of Physical Activity

최의창(2020a)은 체육교과에서 전인적 발달은 “신체활동 지식이 속한 인지적, 심동적(신체적), 정의적 학습영역의 고른 발달을 의미하며, 전인이란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측면이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며 체육은 학습영역의 전 측면을 개발, 함양, 증진 시켜주는 교과목”이라

고 주장하였다. 또한, 인문적 체육을 강조한 “피지컬 리터러시(physical literacy)¹⁾”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전인을 ‘운동소양을 지닌 학습자’로 규정하였다. 그가 주장한 운동소양을 지닌 학습자는 “운동에 관해서 지식적으로 알기를 좋아하고, 신체적으로 운동하기를 좋아하며, 마음속으로 운동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특징을 지닌 학습자”이며, 학습의 영역을 운동지, 운동능, 운동심으로 분류 하였다(유정애, 2003 ; 최의창, 2019).

이처럼 체육교과는 신체활동을 통해 구조적으로 나뉜 학습영역의 전 측면이 고르게 발달되는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체육교과의 통합적 관점에서 전세명(2011)은 체육교과의 통합적 접근의 목적이 “체육활동이 지니고 있는 복합적인 여러 요인들을 학생들이 총체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체육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과정을 통해 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2) 신체활동 가치 중심의 체육과 교육과정

국가수준의 체육과 교육과정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기점으로 ‘기능’ 지향에서 ‘신체활동 가치 중심’ 지향으로 전환되었다(유정애, 2007). 2007년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은 ‘신체활동 가치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신체활동을 수행하는 목적이 신체활동이 가지는 ‘가치(value)’의 달성에 있으며, 5가지 가치인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를 중심으로 내용체계를 구성하였다(유정애, 2007). 체육교과에 있어서 신체활동 가치 중심으로의 전환은 기존의 체력증진을 위한 스포츠 기능의 관점에서 ‘활동적인 삶을 위한 라이프 기술’로 체육교육의 철학이 옮겨지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였다(강신복, 2007).

2015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신체활동 가치’는 기존의 여가영역이 건강영역에 포함되고, 안전영역이 신설되어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안전의 5개 신체활동 가치로 내용체계를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인문학적 소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전인적 발달을 위한 통합적 교수·학습의 실천을 지향하고 있다(유창완·윤기준, 2019 ; 신기철, 2016). 이러한 변화는 통합적 교수·학습을 위한 교사의 신념과 경험 즉, 체육교과를 실제 수업현장에 맞게 재구성하는 교사의 역량이 점차 강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Table 1은 체육과 교육과정 교수·학습방향이 개정을 거듭할수록 교사의 역량과 전문성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이다(조기희·오승현, 2020).

1) 영국의 체육교육학자인 Margaret Whitehead에 의해서 2000년에 제안된 개념으로 학술적 관심 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정책이나 학교교육과정에 반영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신체적 자질만이 아니라, 인지적이고 정의적인 영역에까지 체육교육의 목적이 포괄해야 한다는 체육교육론에 근거한 주장이다. (최의창, 2020b)

Table 1. Changes in Physical Education Teaching-Learning Methods

2007 개정	2009 개정	2015 개정
(1)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 (2) 통합적 교수·학습활동 (예: 읽기, 쓰기, 감상하기, 조사하기, 토론하기 등)을 함께 제공 (3) 창의적 교수·학습 방법의 선정과 활용	(1) 창의·인성을 지향하는 교수·학습 방법 (2)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 (3) 자기 주도적 교수·학습 환경 조성 (4) 통합적 교수·학습 환경 조성 (5) 효율적 교수·학습 방법의 선정과 활용	(가) 체육과 역량 함양을 지향하는 교수·학습 (나)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수준별 수업 (다) 자기 주도적 교수·학습 환경 조성 (라) 전인적 발달을 위한 통합적 교수·학습 (마) 맞춤형 교수·학습 방법의 선정과 활용 (바) 정과 외 체육 활동과 연계한 교수·학습

2.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체육과 교육과정 이해

(1) 국가수준의 체육과 교육과정의 한계

국가수준의 체육과 교육과정은 신체활동 가치 추구를 통해 체육교과의 목적인 전인 양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유정애, 2003 ; 이정택, 2015). 하지만 국가수준의 체육과 교육과정은 신체활동 지식의 구조적 측면과 체육교과를 가르치는 교사 역량 측면에서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첫째, 신체활동 지식의 학습영역간 분절된 구조적 측면의 한계이다. 유정애(2003)는 체육교과를 인지, 심동, 정의의 학습영역으로 나뉘서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인지적 영역이 대체적으로 체육학적 지식, 심동적 영역은 운동기능 및 체력, 정의적 영역은 태도로 인식하도록 만든 이 구조는 신체활동을 인지적 측면과 거리가 먼 기능으로 동일시하는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인지적 영역에서 지도되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고, 심동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에서 지도되는 운동기능과 태도는 결코 지식으로 인정될 수 없는 하나의 보조물로 판단될 여지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유정애(2003)는 체육교과의 세 영역을 통합하여 균형있게 교육할 수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분절된 학습영역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교육현장에서는 교수·학습 방법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인성을 가르치는 정의적 영역을 소홀히 하게 되었고, 상대적으로 수월한 기능 위주의 교육이 중심이 됨으로써 전인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 있다(류태호, 2001 ; 이정택, 2015).

둘째,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체육교사 역량 측면의 한계이다. 류태호(2001)는 체육교육에 문제의식을 가진다면,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주체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최의창(2007)은 체육교과는 전인 양성을 위해 학생들에게 인성을 가르치는 교과임을 밝히며 체육수업에서 인성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체육교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역량중심의 2015 체육과 교육과정 또한 신체활동을 통해 체육 교과 역량을 가르치는 현장 교사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조기희·오승현, 2020). 하지만 조기희·오승현(2020)의 연구에서 많은 교사들이 체육교과의 역량을 실제 체육수업에서 구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최의창(2010)은 체육을 가르치는 일은 규범과 가치가 전달되는 일임을 강조하며 체육교사가 교과외의 전문성과 함께 도덕 교육적 자질을 지니고 있어야 하지만 대학에서 전인교육을 위한 교사양성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는 곧 학교체육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최의창, 2007).

이처럼 체육교과는 신체활동을 통해 신체활동 지식을 가르침으로써 전인을 양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신체활동 지식이 가진 분절된 구조적 한계와 이를 가르치는 교사의 한계가 체육교과를 통한 전인 양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최의창(2010)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존의 과학적 체육에 인문적 체육의 요소를 통합한 ‘하나로 수업모형’과 대학에서의 예비교사 교육 강화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하나로 수업모형’이 심신이원론적 관점의 ‘신체의 교육’, ‘신체를 통한 교육’으로 체육을 정당화하는 방식에서 벗어났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오승현, 2013), ‘운동을 하는 것’의 기법적 차원과 ‘운동을 아는 것’의 심법적 차원의 구분은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여전히 운동에 대한 심신이원론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최유탍 외, 2011). 그 결과 체육교과는 “전인(whole person)”의 양성을 추구하고 있지만 여전히 분절되어 있는 신체활동 지식을 통합하여 교육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학교체육현장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해석한 신체활동 지식으로 신체활동 지식의 구조적 측면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학생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도록 돕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된 교사의 역할이 요구된다.

(2)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체육교과의 전인교육

최의창(2020a)은 “체육수업에서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학습영역이 고르게 발달되면, 전인적으로 발달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사람을 ‘체성, 지성, 감성, 덕성, 영성’의 성향을 지닌 총체적 존재로 간주하고, 이 성향들이 하나로 강하게 연결되는 과정이 자기 성장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자기 성장을 통한 신체활동 향유체험이 공동의 행복을 추구할 때 스포츠의 가치

가 성취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방향성이 오늘날 체육교과를 통한 인성교육의 강조로 이어졌다(김명운 외, 2000 ; 권민정·김경숙, 2006 ; 김성훈·이안수, 2008 ; 강기현·오수학, 2009 ; 이재용, 2013). 과학적 체육 중심에서 벗어나 인문적 체육이 강조되면서 위의 주장은 인성교과로서의 체육교과에 정당성을 부여하였지만, 인성교육 중심으로 신체의 기능을 강조하는 심동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의 ‘정신’, ‘참모습’과 같은 형이상학적 이상을 설정하여 가르치려는 노력이 교육적으로 적절한지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였다(최유탉 외, 2011). 이러한 의심들은 전인을 양성하겠다는 체육교과의 목적 달성을 여전히 어렵게 하고 있다(권민정·김경숙, 2006).

과학적 체육은 인간을 이분법적 존재로 보고 신체를 수단으로 하는 신체의 교육, 신체를 통한 교육을 추구한다. 인문적 체육에서는 지덕체, 지정의 등 인간을 이루는 중요한 측면들이 조화롭게 균형 잡힌 ‘전인’의 양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또한 신체를 통한 교육의 새로운 버전이다(최의창, 2009). 이처럼 과학적 체육과 인문적 체육 모두 인간을 이분법적 존재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체육교과가 인간을 이분법적 존재로 보면서 통합교육의 방법을 통해 인간을 전인으로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도 볼 수 있다.

성경에서는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피조물로 설명하고 있다. 최용준(2020)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음을 뜻한다”고 주장하며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 중 전지전능하심이나 영원하심 등과 같은 사람이 공유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거룩하심이나 의로우심, 자비하심 등과 같은 사람이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을 지니고 있음”이 이를 보여준다고 주장하였다(최용준, 2020: 62). 또한, 그는 성경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긴 하지만, 죄로 인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성경은 인간을 고귀한 존재임과 동시에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다.

최용준(2020)은 이러한 인간의 두 가지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제대로 알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화명령(Cultural mandate)”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해야 할 청지기로서의 책임이 있는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신체활동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속성들을 드러내는 것이 곧 체육교과를 통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성화되어져 가는 자기 성장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창 2:7).”

하나님께서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생령이 된 영적 존재로, 신체와 영이 분리될 수 없는 전인격적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였다. 인간에 대한 이러한 성경의 관점을 확장 시키면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관계 속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요 15:12).”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자기 성장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책임 있는 응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 사랑을 연습하며 배워가게 된다. 체육교과에서 교사와 학생은 수업을 통해 맺어지는 관계 속에서 사랑을 배우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기쁨을 맛보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서로를 도울 수 있다. 이는 “하나님의 존재가 다양성(삼위) 안에서의 일치성(일체)을 계시하듯 사람도 남자와 여자로 하나됨”을 이루어 공동체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최용준, 2020: 61-62). 그리고 “삼중적인 관계(하나님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속에 있는 존재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통해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을 통해 동료와의 관계,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땅에 대한 지배권을 통해 자연과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Hoekema, 2012: 113).

체육교과는 신체활동을 통해 신체활동 지식을 배워 신체활동 가치를 삶에서 실천하는 전인교육을 추구하며, 우선적으로 자기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아가 자기 성장은 타인과 공동체의 행복을 돕는 방향으로 확장 시키는 것이 체육교과의 역할이라고 최의창(2020)은 주장하였다. 그는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향을 강하게 연결하여 신체활동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성경에서의 자기 성장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과 동료, 자연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배워가며 그를 닮아가는 것이다(강용원, 2015 ; 차건수, 2005).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체육교

과의 전인교육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연습하며,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

(3)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체육교과의 신체활동 지식

체육교과는 전인교육을 추구하지만, 신체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앞서 정응근(1987)은 지적하였다. 반면 신체관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에서 Hoekema(2012)는 “사람을 구분하여 바라보는 이분설, 삼분설 등의 여러 관점들을 배격해야 하며, 성경에서는 사람이 각 부분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사람을 과학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하였다(Hoekema, 2012: 283-290). 또한, 그는 “사람은 불가피하게 하나님과 관련되어있는 하나의 총체, 전체, 통일적인 존재”로 묘사하며 “심신 상관적 통일체”로 일컫고 있다(Hoekema, 2012: 283-299). 그리고 전인인 사람에 대한 학교에서의 교육을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 있다.

학교의 주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지적인 교육이지만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이 전인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학교는 지성만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의지도 호소해야 한다. 효과적인 교육은 학생 안에 과목에 대한 사랑과 그 과목에 대해 더 배우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켜야 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학교는 지성뿐만이 아니라 몸에 대한 관심도 나타내야 한다(Hoekema, 2012: 308).

Hoekema(2012)는 학교란 전인격적 존재인 사람(학생)을 교육해야 하는 곳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학교체육은 전인격적인 존재인 사람이 체육교과에서 신체활동을 통해 자신의 신체에 관심을 가지고, 자신과 관계된 것들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할 때에야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체육수업에서 학생은 신체활동을 통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개념적 지식) 알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체성에 관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세계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임을 아는 지식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명령을 수행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수행 지식). 체육교과에서 수행 지식은 아는 것을 시연할 수 있는 신체활동, 즉 움직임으로 구현되므로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전인격적인 준비의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동료, 자연과 상호작용(관계 지식)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대의 계명인 사랑을 연습해 가는 것이 체육교과를 통해 학습해야 할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신체활동 지식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 세계관을 기초로 하여 체육교과를 가르치는 목적을 두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하나님께서 만드신 전인격적 존재인 사람의 존재에 대해 이해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 체육교과를 통해 배울 수 있다. 둘째, 신체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최대 명령인 사랑을 연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관계 속에서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해석한 신체활동 지식은 Figure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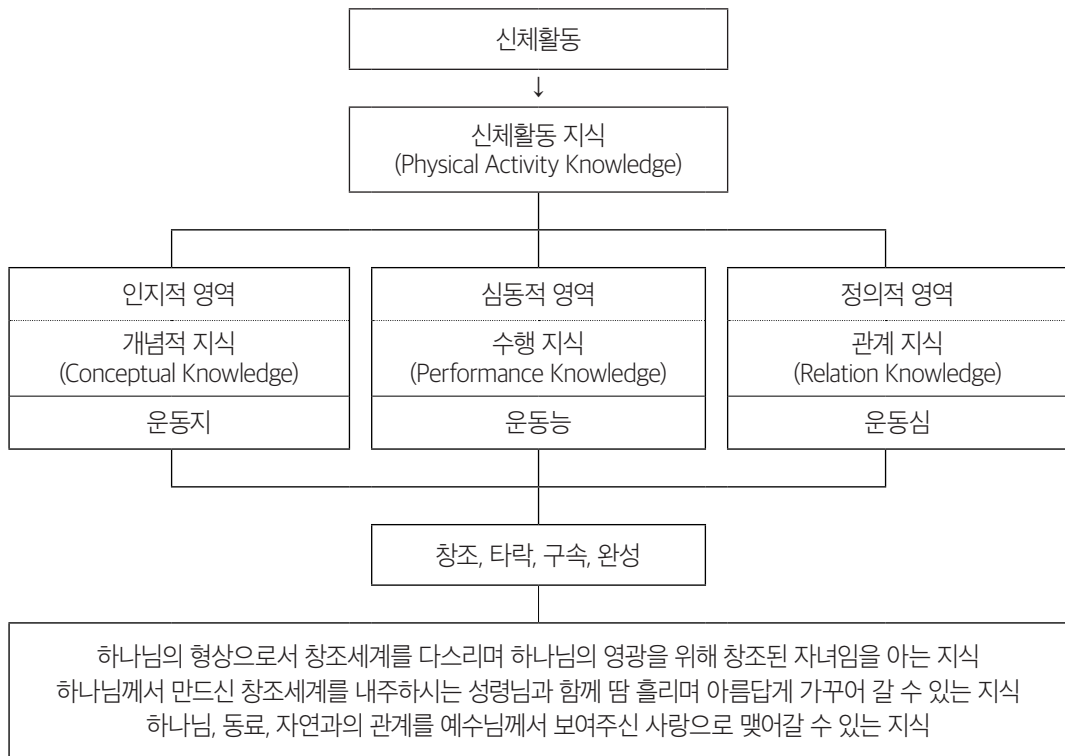


Figure 2. Physical Activity Knowledge Reconstructed based on a Christian Worldview

Figure 2의 재해석한 신체활동 지식을 토대로 가르칠 때에 다음과 같은 학생들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신체활동 지식 추구를 통해 전인격적인 존재인 사람(자신의 존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신체활동 지식 추구를 통해 하나님의 문화명령에 책임감 있게 응답하며 청지기적 삶을 수행하는 연습을 할 수 있다. 셋째, 신체활동 지식 추구를 통해 하나님, 동료, 자연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다.

III. 체육과 건강영역 교육과정 재구성

1. 체육과 건강영역 교육과정 재구성의 필요성

(1) 국가수준의 체육과 건강영역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

체육과의 건강영역은 “건강과 신체활동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내면화하여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한 건강과 체력 관리 방법을 탐색하고 실천함으로써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증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다(교육부, 2015).” 하지만 초·중등학교 체육 교과서에 제시된 건강영역의 내용은 타 영역(도전, 건강, 경쟁)에 비해 이론적 부분의 내용 제시가 많아 주로 교과서를 활용한 교실수업으로 실시되고 있다(최효근, 2022). 교과서의 이론적인 내용으로는 초등학교 3~4학년군의 건강한 생활습관, 5~6학년군의 건강한 성장 발달, 중학교 1~3학년군의 건강한 생활환경 등이 있고, 실기 위주의 내용으로는 초등학교 4학년~중학교 3학년에서 운동체력과 건강체력 증진을 위한 PAPS(학생건강체력평가)을 위한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건강영역의 구성은 진단적 차원에서 건강에 대한 인지적 지식만을 전해줄 뿐, 학생들이 실제 삶에서 지속적인 건강 유지와 관리를 제대로 실천하며 그 능력을 함양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체육교과 건강영역에 대한 이러한 접근은 인지적, 심동적, 정의적 영역의 균형 잡힌 전인교육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체육교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요인이 된다(홍원준·김영식, 2012).

(2) 국가수준의 체육과 건강영역 교육과정 재구성 방향

체육과의 건강영역은 인지적 영역에 관한 지식만을 가르치고, 자신의 신체능력만을 측정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되는 영역이다. 체육과 건강영역 교육의 핵심은 학생 스스로 자신의 몸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돕는 신체활동은 학생의 일상생활을 염두해 둔 현재 학생의 상태 진단과 처방 그리고 실천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으로 건강영역의 단원을 재구성하여 학생들이 건강의 가치를 진단, 처방, 실천의 과정을 통해 신체활동 지식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구성한 체육과 건강영역

(1) 체육과 건강영역 교육과정 성격의 재구성

2015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강영역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체육과의 건강영역은 개인의 생명과 안전의 확보로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삶을 추구하는데 밑거름이 되며, 사회가 온전히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고 가치이다. 건강영역은 신체의 성장과 발달, 신체활동과 생활습관, 체력의 증진과 유지, 생활 속에서의 위생, 질병, 영양, 신체적 여가 활동 등과 관련된 건강을 이해하고, 건강을 자기 주도적으로 실천, 관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영역이다(교육부, 2015).

2015 체육과 교육과정 건강영역의 성격을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재구성하였다.

‘체육과의 건강영역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몸의 소중함을 알고, 개인의 생명과 안전의 확보로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삶을 추구하는데 밑거름이 되며, 사회가 온전히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고 가치이다. 건강영역은 죄로 인해 자신과 이웃을 사랑하는 힘을 잃어버린 사람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전인격적 존재로 만드셨음을 알고, 신체의 성장과 발달, 신체활동과 생활습관, 체력의 증진과 유지, 생활 속에서의 위생, 질병, 영양, 신체적 여가 활동 등과 관련된 건강을 이해하여,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관계 속에서 교제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를 수 있는 영역이다.’

(2) 체육과 건강영역 교육과정 목표의 재구성

2015 체육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강영역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건강의 가치를 이해하고 건강 및 체력을 증진하며 건강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천한다(교육부, 2015).”

체육과 건강영역에서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해석한 신체활동 지식을 학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건강영역의 목표를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창조세계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하게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을 통해 각자에게 주어진 건강의 가치를 이해하고, 사랑을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건강 및 체력을 증진하며 건강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천함으로써 창조세계에서 각자에게 맡겨진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3)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구성한 체육과 건강영역 ‘등산활동’ 수업 지도안

Table 2. Hiking Activity Lesson Plan

영역	건강	수업시간	120분	인원	20명
교과역량	건강관리, 신체수련		신체활동	등산	
성취기준	[9체아-07] 여가의 개념과 실천 방법을 이해하고, 다양한 여가 활동 참여 방법을 계획하고 실천한다. [재구성기준1]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모습과 대면하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연습을 한다. [재구성기준2]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적 삶을 연습한다. [재구성기준2] 여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세계와 아름답게 관계 맺는 연습을 한다.				
주제진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에서 사랑을 연습하며 배워간다.				
핵심 질문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동료와 자연과 아름답게 관계 맺어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핵심개념의 기독교적(성경적) 해석			
창조	타락	구속	완성
하나님께서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게 사람을 만드셨다.	우리는 죄로 인해 사랑을 만드신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 버리고, 우리의 몸을 자신의 유익만을 쫓는 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우리 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우리의 육신은 흠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이는 영생을 얻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학습해야 할 신체활동 지식			

-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세계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녀임을 아는 지식
-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를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땀 흘리며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지식
- 하나님, 동료, 자연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맺어갈 수 있는 지식

준비물	교사	물, 간식, 구급낭	차시	1/1
	학생	물, 간식	장소	연대봉 ²

2) 임진왜란 당시 최초로 왜적을 발견해 불을 피워 올렸던 봉수대가 있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천성동 가덕도에 있는 459.4m 높이의 산이다.

활동 단계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교수 방법	시간	자료 및 유의점
안내하기	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대봉의 의미에 대한 설명 연대봉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 학습한다. 창조세계에 대한 청지기의 역할 질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자연훼손 등의 사회적 이슈를 통해 자연과 관계 맺는 방법에 대해 질문한다. 준비운동 및 안전교육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준비운동을 실시한다. 	강의식 질문식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대봉 등반간 고민해야 할 청지기의 역할에 대한 질문 제시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안전 사고 예방
열어보기	찾아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을 오르며 창조세계와 대면하기 등반간 자신의 체력상태 점검한다. 등반간 동료와 교제하는 방법을 찾아본다. 자연과 교제하는 방법을 찾아본다. 	질문식 동료 학습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시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안전사고에 대비
어려부여하기	이해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대봉 정상에서 창조세계와 대면하기 창조세계의 아름다움을 모둠별 활동을 통해 자신의 방법으로 표현한다. 자신의 몸을 확인하고, 아픈 부위를 치료한다. 동료와 땀흘림의 의미에 대해서 나눈다. 창조세계를 가꾸어 나가는 청지기의 역할을 동료와 함께 찾아본다. 	질문식 동료 학습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둠을 정하여 질문에 대한 각자의 생각 나눔
	찾아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을 내려오며 창조세계와 대면하기 하산간 자신의 체력상태 점검한다. 정상에서 동료들과 함께 찾은 창조세계와 아름답게 교제하는 법을 실천하면 내려온다. 	질문식 동료 학습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시로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안전사고에 대비 창조세계와 교제하는 모습 확인
	정리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무리하기 정리운동을 실시하여 피로를 풀어준다. 등산 활동을 통해 개인/모둠이 학습한 신체활동 지식을 구체화하여 발표한다. 	질문식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충분한 정리운동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피로 회복

IV. 결론

체육교과는 신체활동을 통해 신체활동 지식을 배워,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과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체육교과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정을 통해 교과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현장 체육수업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체육교과의 이분법적인 신체관으로 인해서 운동기능 중심의 코칭, 인성교육을 위한 도구로 체육수업은 활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접근의 체육수업은 전인교육에 실패하고 있으며, 건강하지 못한 사회 구성원을 배출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인교육에 실패하고 있는 체육교과의 문제점을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전인격적 존재인 인간과 삼위 하나님 의 '관계성'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전인교육을 위해 체육교과의 신체활동 지식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적용하여 체육과 건강영역 수업 지도안을 만들었다.

체육과 건강영역의 주된 목적은 학생의 건강에 대한 진단과 처방 그리고 실제 삶에서 건강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에 있다. 이에 기독교 세계관을 접목한 건강영역 등산활동 수업은 등산을 통해 전인격적 존재인 인간이 자신과 동료,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교제를 통해 신체활동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구성하였다. 산을 오르고 내리면서, 자신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과 동시에 동료와 자연과 교제하며 사전에 받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안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활동을 마무리하며, 학습한 신체활동 지식을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세계와의 관계성 측면에서 등산 활동이 어떤 의미였는지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체육수업에서 신체활동 지식은 단순히 신체의 움직임만으로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한 수많은 관계 속에서 던져지는 질문에 대한 각자의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학습되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연습하는 과정이며, 체육교과를 통해 '사랑'을 배워가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구성한 체육수업의 모습이어야 한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고전 13:12-13).”

사랑을 연습하며 배워가는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체육수업은 죄로 얼룩진 세상에서 다시 오실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체육교과를 단순히 운동기능 발달과 인성교육의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체육교과의 가치를 포기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체육교과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우리의 몸(신체)으로 신체활동 지식을 배워가야 하는 교과이다. 이 지식을 배워갈 때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며 죄로 물든 인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

불법과 거짓이 성행하고, 자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가는 종말의 시대(마24:12)에 체육교과는 자라나는 다음세대와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연습하고, 배워가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어주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기현·오수학 (2009). 뉴스포츠를 적용한 체육수업이 중학생들의 정의적 영역 발달에 미치는 영향. **스포츠과학논문집**, 21, 51-68.
- [Kang, G. H. & Oh, S. H. (2009). The Effects of Physical Education Class Applying New Sports on Affective Domain Develop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Sport Science*, 21, 51-68.]
- 강신복 (2007). 2007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내용 분석. **스포츠과학리뷰**, 1(2), 1-12.
- [Kang, S. B. (2007). The Analysis of the Contents of 2007 Revised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Sports Science Review*(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of Sport Science), 1(2), 1-12.]
- 강용원 (2015). 기독교 인성교육의 성경적 기초. **기독교교육정보**, 47, 361-398.
- [Kang, Y. W. (2015). Biblical Foundations of the Character Education.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47, 361-398.]
- 교육부 (2015).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 [Ministry of Education. (2015). *2015 Revised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 권민정·김경숙 (2006). 중학교 체육교사의 정의적 영역 수업방식 탐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3(1), 45-64.
- [Kwon, M. J. & Kim, K. S. (2006). Study on education for affective domain of physical education teachers at middle schools.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13(1), 45-64.]
- 기독교학문연구회 교육학분과 역. (2004). **기독교 교육의 기초**. Edlin, R. J. (1999). *The Cause of Christian Education*. 서울: 그리스심.
- [KCBA Literary Agency. (2004). *The Cause of Christian Education*. Seoul: Grisim. Trans. Edlin, R. J. (1999). *The Cause of Christian Education*. Blacktown: NICE.]
- 김기철·박상봉·신기철·안양옥 (2012). 신체활동 가치 중심 체육 교수·학습자료 개발. **한국초등교육**, 23(2), 95-110.
- [Kim, K., Park, S. B., Shin, K. C. & Ahn, Y. O. (2012). Development of Learning and Teaching Materials which is Centered the Values of Physical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3(2), 95-110.]
- 김명운·권옥동·여인성 (2000). 초등학교 체육교육의 정의적 영역에 관한 연구.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 철학회지**, 8(2), 203-221.
- [Kim, M. W., Kwon, W. D. & Yeo, I. S. (2000). A Study on the Affective Domain of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Philosophy of Sport*,

- Dance, & Martial Arts'*, 8(2), 203-221.]
- 김성훈·이안수 (2008). 초등학교 체육수업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포츠교육학회지**, 15(2), 151-170.
- [Kim, S. H. & Lee, A. S. (2008). The effects of self-directed Learning on affective domain in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class.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15(2), 151-170.]
- 김옥태 (2012). 성경에 나타난 체육-신체관, 스포츠, 여가관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7(2), 93-118.
- [Kim, O. T. (2012). Physical Education in the Bible -A Study of the View of the Body, Sports and Leisure-. *Faith & Scholarship*, 17(2), 93-118.]
- 나현규 (2020). 지식의 특성을 통해 본 교육적 의미 연구. **교육사상연구**, 34(4), 49-78.
- [Na, H. K. (2020). Study on Educational Meaning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Knowledge. *The Korean Association of Educational Ideas*, 34(4), 49-78.]
- 류태호 (2001). 체육교사의 수업 방식 및 변화과정 분석. **한국스포츠포츠교육학회지**, 8(1), 161-170.
- [Yu, T. H. (2001). The Study of Teaching Style and it's Change Process in a Physical Education Teacher.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8(1), 161-170.]
- 신기철 (2016).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에 대하여. **우리체육**, (15), 55-58.
- [Shin, K. C. (2016). About 2015 Revised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Woori Physical Education*. (15), 55-58.]
- 안양옥·신기철·김기철 (2005). 초등학교사의 게임에 관한 개념적 지식 분석. **한국스포츠포츠교육학회지**, 12(2), 23-43.
- [Ahn, Y. O., Shin, K. C. & Kim, K. C. (2005). An Analysis of the Conceptual Knowledge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Concerning Games in the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12(2), 23-43.]
- 오승현 (2013). 인문적 체육교육론 정당화 방식의 비판적 분석. **한국스포츠포츠교육학회지**, 20(2), 25-49.
- [Oh, S. H. (2013). A critical analysis on the justification of humanities-oriented physic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20(2), 25-49.]
- 유정애 (2003). 체육 교과 지식의 의미 재정립에 따른 학습 영역 구조의 방향. **한국스포츠포츠교육학회지**, 10(3), 81-96.
- [You, J. A. (2003). The Meaning of Knowledge and Directions of Learning Domains in Physic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10(3), 81-96.]
- 유정애 (2007). 「2007년 개정 체육과교육과정」의 이해와 현장 적용. **우리체육**, (1), 42-52.
- [You, J. A. (2007). Comprehensive Understanding and Field Application of 2007 Revised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Woori Physical Education*, (1), 42-52.]

- 유정애 (2009). **체육과 교육과정 총론**. 서울: 대한미디어
- [You, J. A. (2009).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Summary*. Seoul: Daehanmedia.]
- 유창완·윤기준. (2019).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 문서체제 개선 방향 탐색.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4(1), 1-15.
- [Yu, C. W. & Yoon, K. J. (2019). Exploring the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2015 revised physical education curriculum document structure.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24(1), 1-15.]
- 이용중 역. (2012). **개혁주의 인간론**. Hoekema, A. A. (1986). *Created in God's Image*. 서울: 부흥과 개혁사.
- [Lee, Y. J. (2012). *Created in God's Image*. Seoul: Revival and Reformation. Trans. Hoekema, A. A. (1986). *Created in God's Image*. Grand Rapids: Eerdmans.]
- 이재용 (2013). 학교체육을 통한 정의적 영역 발달 방안 탐색. **한국체육교육학회지**, 18(3), 47-59.
- [Lee, J. Y. (2013). An Inquiry into Affective Domain Development through Physical Education.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18(3), 47-59.]
- 이정택 (2015). 학교체육에서 인성교육 연구의 경향과 발전과제. **한국초등체육학회지**, 21(2), 69-83.
- [Lee, J. T. (2015). Trends and Development Tasks of Character Education Study in School Physical Education. *Korean Society of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21(2), 69-83.]
- 정응근 (1987). 체육학의 학문성과 그 문제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연구소보**, 제19호, 서울대학교 체육연구소 5-7.
- [Chung, E. K. (1987). Academic Achievements and Problems in Physical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Education, *Physical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No. 19, Seoul National University Physical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5-7.]
- 전세명 (2011). 하나로 수업모형 적용을 통한 초등체육교수-학습과정의 통합적 접근. **한국스포츠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75-94.
- [Jeon, S. M. (2011). An integrated approach to the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teaching-learning process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Hanaro class model. *Korean Society of Sports Education Academic Papers*, 75-94.]
- 조기희·오승현 (2020). 2015 개정 체육과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 실태와 지원 방안: 초등 3~4학년을 중심으로.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7(3). 17-39.
- [Jo, K. H. & Oh, S. H. (2020). A Study on the Field Application and Ways to Support the 2015 Revised PE Curriculum: Focused on 3~4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27(3), 17-39.]

- 차건수 (2005). 체육철학: 기독교적 인간 이해에서 본 스포츠 윤리성. **한국체육학회지**, 44(1), 31-43.
- [Cha, G. S. (2005). An Analytical Study of Sports Ethics from the Perspective of Christian Anthropology.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4(1), 31-43.]
- 최용준 (2020). **성경적 세계관 강의**. 서울: CUP
- [Choi, Y. J. (2020). *Biblical Worldview Lecture*. Seoul: CUP.]
- 최유탍·김영구·오현택 (2011). 인문적 체육교육과 하나로 수업의 논리적 가정에 대한 검토.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9(1), 129-143.
- [Choi, Y. T., Kim, Y. K. & Oh, H. T. (2011). A study on the Logical assumptions for humanities-oriented physical education and Hanaro teaching model.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he Philosophy of Sport, Dance, & Martial Arts*, 19(1), 129-143.]
- 최의창 (2004). 하나로 수업. **한국스포츠교육학회보**, (34), 5-10.
- [Choi, E. C. (2004). class as o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ports Education*, (34), 5-10.]
- 최의창 (2007). 체육교사교육에서의 인성교육 탐색.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4(4), 1-23.
- [Choi, E. C. (2007). Character Education in Physical Education Teacher Education: A Review.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14(4), 1-23.]
- 최의창 (2009). 전인지향적 체육교육론으로서의 인문적 체육교육: 탐색적 분석. **한국체육학회**, 48(6), 243-260.
- [Choi, E. C. (2009). Humanities-oriented physical education as a physical education philosophy for whole person: an exploratory analysi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48(6), 243-260.]
- 최의창 (2010). 스포츠맨십은 가르칠 수 있는가?.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17(1), 1-24.
- [Choi, E. C. (2010). Can sportsmanship be taught? -The difficulties and possibilities of teaching the affective domain in physic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17(1), 1-24.]
- 최의창 (2019). 하나로. **우리체육**, (22), 4-7.
- [Choi, E. C. (2019). Hanaro. *Woori Sports*, (22), 4-7.]
- 최의창 (2020a). 한국체육 개혁의 방향과 스포츠교육의 역할 - 스포츠교육이 이끌어가는 한국체육 4.0 을 지향하며 -.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7(1), 1-21.
- [Choi, E. C. (2020a). The Direction of Korean Sport Reform and the Role of Sport Education - A Thought on the Korea Sport 4.0 led by Sport Education, not Vice Versa -.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27(1), 1-21.]
- 최의창 (2020b). **스포츠 리터러시**. 서울: 레인보우북스

[Choi, E. C. (2020b). *Sport Literacy*. Seoul: Rainbowbooks.]

최효근 (2020). 코로나-19로 변화된 체육수업 현장. **우리체육**, (24), 38-42.

[Choi, H. G. (2020). The field of physical education class changed by COVID-19. *Woori Sports*, (24), 38-42.]

최효근 (2021).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대비한 현행 초등 체육교과서 인식 및 활용실태 연구. **한국체육교육학회지**, 26(5), 57-71

[Choi, H. G. (2021).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Utilization of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Textbooks in Preparing for the 2022 Revised Curriculum.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26(5), 57-71.]

최효근·박종률 (2021).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초등학교 체육수업 실천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교육학회지**, 28(1), 223-240

[Choi, H. G. & Park, J. L. (2021). Elementary Physical Education Classes in COVID-19: A Case Study on Practice.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28(1), 223-240.]

홍원준·김영식 (2012). 초등학교 체육 교과서에 대한 교사의 인식 및 활용 실태. **통합교육과정연구**, 6(1), 165-194.

[Hong, W. J. & Kim, Y. S. (2012). A Study 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ption and Utilization of Physical Education Textbooks. *Integrated Curriculum Research*, 6(1), 165-194.]

“안우진 WBC 탈락 비판한 추신수…여전한 ‘학폭 논란’에 팬 반응은 싸늘”, JTBC(2023.1.23.). Retrieved from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2031. (2023.3.2.)

[“Choo Shin-soo criticizes Ahn Woo-jin for dropping out of the WBC…Fan reaction to the still’ controversy over school violence’ is cold, JTBC (2023.1.23.). Retrieved from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12031(2023.3.2.)]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구성한 체육교과 건강영역

Physical Education Lesson Planning Based on a Christian Worldview

박영진 (장대현중고등학교, 교사)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전인교육을 추구하는 체육교과가 전인교육에 실패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체육과 교육과정의 철학적 배경이 되는 신체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기독교 세계관적 관점에서 체육교과 전인의 개념을 재정의한 다음, 체육교과를 통해 가르치는 신체활동 지식을 재해석하였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재해석한 신체활동 지식 학습을 위해 체육교과의 신체활동 가치 영역 중 건강영역의 등산활동을 선정하여 수업지도안을 만들었다. 등산활동 수업은 자기 자신과 동료,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연습하며, 배워갈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이 과정이 곧 체육교과가 추구하는 전인 양성과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준비되는 과정으로 보았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글은 기독교적 관점에서 체육교과가 신체활동을 도구로 사랑을 연습하고 배워갈 때에 전인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제언하였다.

주제어: 기독교 세계관, 체육교과 재구성, 신체활동 지식, 건강영역, 사랑